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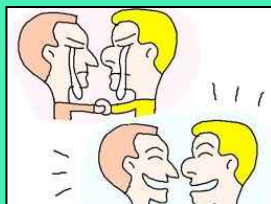
CONTENTS

한 달의 묵상	3
고난의 밤에 드리는 야베스의 기도	4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7
천국가면 불평이 사라질까?	8
이 넘치는 감사	10
잔소리 같은 조언	12
건강하고 싶으면 감사	14
진정한 감사	15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주는 글(1)	17
나보다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24
참된 위로	26
신기한 무화과나무 열매 맺기	28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7가지 이유	32
사명 위해 일하는 행복	34

〈한 달의 묵상〉

♣ 친 구 ♣

친구란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마음 깊은 곳을 열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의 확신을 견고한 신뢰로 누설치 않는 사람,
당신의 가장 거룩한 소망과 이상을 이야기할 때
마음속으로 비웃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당신의 감정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
비록 이해지 못해도 당신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다른 이들이 오해할 때 당신을 변호해주고 온 세
상이 등을 돌려버릴 때 당신 곁에 서 있는 사람,
당신의 약점을 알고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슬플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의 곁에 있기
위해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사람,
절대로 당신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고난의 밤에 드리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홀릉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에 특별히 산고가 심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 주었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이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리어 내 영토를 넓혀 주소서!

주님의 손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불행과 고통을 멀리 없애 주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호소를 들어주셨다(대상 4:9-10).

바다에 103,000 종류의 조개 중 진주를 만드는 조개는 1,300 종류, 1%정도에 불과하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고난으로 불평원망하며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영롱한 진주처럼 삶을 가꾸어가는 결작 인생들도 있다.

1. 누구에게나 고난의 밤은 찾아온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의 공통점은 그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고난으로 가득 차있다. 나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객관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

2. 하나님은 고난의 밤을 통해 당신의 사람을 성장시킨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위기라는 말은 위태할 '위(危)'자와 기회 기(機)자로 이루어졌다. 위기는 위험일 수도 있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고난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성장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고난은 그릇과 인물 크기와 비례한다.

3. 고난의 밤에는 불을 밝혀줄 믿음이 필요하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은 자기 죄로 살던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축복으로 받은 이름이다. 야베스는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변화시켜주실 것을 믿었다. 그의 인생은 이 진리를 믿을 때 180°로 달라졌다.

4. 고난의 밤에도 기도의 문은 열려있다.

기도는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비결이다. 기도하려면 피곤하고 졸리고 잠념이 방해한다. 그러나 기도 밖에는 능력과 축복이 나타날 길이 없다. 주께서 도우셔서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자!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5. 고난의 밤은 간증이 만들어지는 기회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는 고난의 시대에 부족을 높이 일으킨 인물이 되었다. 지방의 이름을 야베스, 그 부족도 '야베스'라 칭하게 되었다. 한 지방과 족속의 대명사가 될 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 고난은 간증이 만들어지는 기회다.

6. 고난의 밤은 긍휼의 예수님을 만날 기회다.

히브리서 2장에 예수께서 혈육에 속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붙들어 주려함이라고 했다. 예수께서 범사에 우리들과 같이 되심은 우리 죄를 구속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함이라고 했다.

고난은 긍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다. 난 중에 있는가? 마음을 열고 '나는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자!

7. 고난의 밤이 지나면 관계가 재편성된다.

야베스는 그 형제 보다 존귀한 자라고 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운 영적 관계가 재편성되기를 원하신다. 욥도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고난의 밤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라! 관계가 열려야 축복도 넘친다!

함께 불러봅니다

(통일 503)

인도와 보호

A. M. Toplady (1740-1778)

조금 느리게

고요한 바다로

If, on a quiet sea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 8:26)

373

GOLDEN HILL: 6.6.6.6.

A. Chapin, 1805

1.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2. 큰 물결 바닷길 어나 나 쉬 없게 못하 시고
3. 내 격정 근심 을 쉬 없게 하 시고
4. 이 세상 고락 간 주 뜻 을 본 받 고

주 내 게 순 품 주 시 니 참 감 사 합 니 다
이 풍 랑 어 로 인 하 여 더 빨 리 다
내 주 여 어 둔 영 혼 을 곧 밝 게 하 소 서
내 몸 의 지 없 을 때 큰 믿 음 주 소 서

쉬운 기탁코드(capo=1st) E^b→D A^b→G B^b7→A7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 암을 이긴 감사

어느 교회의 목사님 사모가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입을 굳게 다물고 미음도 입에 대지 않았다.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 교회 시절의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말해서,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히 남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터 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장이었던 윤○○목사님을 만났다.

"목사님, 얼굴이 어둡군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목사님은 형편을 이야기 했다. 그러자 학장님이 제안을 했다.

"노트를 한권 사다가 사모님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세요."

목사님은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 들고 아내에게 갔다.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사모가 그 노트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방에서 나간 후 한창동안 생각에 잠긴 사모는 한 줄, 두 줄, 감사제목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일부터 그리고 감사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러자 점점 통증은 사라지고, 다리에는 웬일인지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깜짝 놀랐다. 암세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감사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감사하는 순간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천국가면 불평이 사라질까?

두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다.
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게으름 뿐 아니라 불만불평이 가득했다.
하나님은 세상살이가 어떠했느냐고 물으셨다.
그러자 부지런한 사람은 힘들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서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서 자신은 단 한 번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살던 집도 좁고, 돈도 마음껏 써 보지
못하고, 또 자식들도 속을 썩이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다며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이 거처할 곳을 안내하셨다.
두 사람은 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세상에서 못 본 아름다운 낙원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역시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감탄하며 소매를 걷고 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이내 아름다운 집과 정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고 있었다.

그런데 불만 많은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무슨 하늘나라가 이러냐며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계속 투덜댔지만 소용이 없자 하는 수

없이 먹을 것을 구하고 잠잘 집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집은 이내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차고, 벌레들이 기어 다녔으며,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벽은 금이 갔다. 그 사람의 불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차라리 세상이 더 좋았다며 한탄만 거듭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심판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난 너희에게 똑같은 조건을 줬 보았다. 하지만 한 사람은 같은 조건으로 천국을 건설했고 또 한 사람은 그 조건을 갖고서도 지옥을 만들었구나.”

그러자 불만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따져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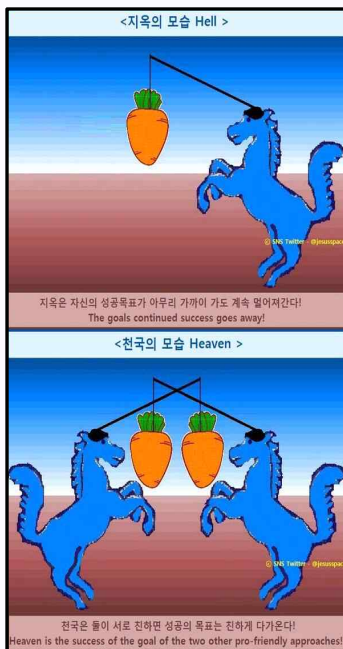
‘천국은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곳이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을 맺으셨다.

『천국을 오해하지 말아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땅의 논리가 아니고 애초 천국의 논리였다.

천국의 논리로 살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도 천국을 건설하며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거저 주어도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너도 그런 사람이기에 결코 천국의 땅 한 평이라도 내줄 수 없다. 네가 만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라.』



이 넘치는 감사

오랜만에 바쁜 시간을 물리치고 혼자 길을 걸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인데,
오늘따라 가을 햇살은 너무나 청명하여
저절로 입에서 탄성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소리 없이 나온다.

온 자연을 흡수해 나오는 말이 아니겠는가?
조용히 길을 걸으면서
감사에 대한 상념에 젖어 본다.

감사를 열어보니 지난날의 감사가 있고,
현재의 감사가 있고,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다.

지난날에 대한 감사는 마음의 욕심을 없애 주고,
현재의 감사는 신바람을 일으키고,
미래에 대한 감사는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오늘 조용히 지난날과 현재에 대하여 감사해 보라.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건강하니 감사,
말을 하니 감사,
볼 수 있으니 감사,
걸을 수 있으니 감사,



웃을 수 있으니 감사.

심지어 일이 잘못 되어도 투정을 부릴 수 있으니 감사.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데

장미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장미꽃의 가시에도 감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려고 하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하여 교훈을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고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더욱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사는

미래에 대한 감사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지만

미래에 대하여 감사하는 일은 흔치 않다.

일이 잘 되거나 성공할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

이 감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감사이다.

미래에 대한 감사를 미리 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성공자라고 말한다.



오늘 하루를 '감사! 감사! 감사!'하며

지난날을 돌아보고

현재를 보며

내친김에

미래에 대해서까지 감사해 봅시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잔소리 같은 조언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
그래서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만 해도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신다. 또한 사람들도 감동을 받는다.
감사의 핵심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다.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자를 고쳐주셨다(눅 17장).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고침 받은 9명도 감사하는 마음은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감사는 불행을 멈추고 기적을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다.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감사기도를 드렸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고 더 큰 감사를 낳는다.
그래서 스피전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이 다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바뀐다.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자.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감사하는 영혼의 질은 탁월하다.
감사하는 영혼이 되어
이 세상을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자.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생명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생활인 줄로 믿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믿음은 대단히 귀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헛된 우상에게 무릎 꿇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

건강하고 싶으면 감사하라

흑인으로서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남아프리카의 첫 번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백인 정부에 의해 26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그가 출옥할 때 사람들은 그가 아주 허약한 상태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걸어 나왔다.

다른 사람들은 5년 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6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그렇게 건강한 상태로 출옥을 할 수 있었냐고 사람들은 질문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대통령에도 당선되었다.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을 지킨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업에도 성공한다. 어려운 위기도 극복한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에도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 !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감사가 넘치는 세상! 은혜가 넘치는 세상! 찬양이 넘치는 세상!



진정한 감사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해 농부가 무를 심었더니 농사가 어찌나 잘 됐는지 커다랗고 튼실한 무들을 많이 수확하게 되었다.

농부는 이 모든 것이 고을을 잘 다스려 주는 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수확한 무 중 가장 크고 튼실한 것으로 골라 원님께 바쳤다.

원님은 농부의 진실된 마음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마침 큰 황소 한 마리가 있어 이를 농부에게 보답의 뜻으로 주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다. 그리고 평소에 욕심 많던 한 농부도 알게 되었다.

그는 착한 농부가 무를 바쳐 큰 황소를 얻었으니, 본인은 원님한테

황소를 바치면 더 귀한 것을 받을 거라 생각했다. 황소를 받은 원님은 그 보답으로 무엇을 줄까 고민하다가 지난번에 착한 농부가 가져다준 무를 주었다.

욕심은 끝이 없다.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가지려고 온갖 욕심을 부린다.

하지만 그 하나는 눈앞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하루는 어제보다 훨씬 행복할 것이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임마누엘 가정

믿음과 꿈을 품고 사는 →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주는 글(1)

1. 남자 친구 or 여자 친구를 구하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일에 목숨을 바치는 백성이 되어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무엇인가 이루어낸 사람들을 보면,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사랑한 사람이다.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스티브 잡스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에 미쳤다. 그의 열정에 감염된 애플사(Apple Inc.)의 직원의 말을 빌려보자.

우리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믿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쁜 것은 그가 하는 일을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는가? 한 끼니의 식사도 제대로 안 되는 오병이어를 받친 한 소년으로 말미암아 장년만 5천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기적이 일어났다.

믿음의 사람인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 애굽 왕의 손자로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의 쾌락을 위해 죄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길을 선택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너무나 고통스러워 울부짖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다.

덴마크를 가리켜서 이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한다. 그러나 덴마크도 처음부터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었다. 1800년도 초반 해도 매우 가난한 농업국가였다. 그리고 영국의 공격을 받아 수도를 비

뜻하여 많은 지역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이때 한사람이 나타났다. 그룬트비라는 사람이다. 그는 목사님이며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낙심하여 주저앉아있는 덴마크 백성들을 향하여 애국운동을 일으켰다. 그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도록 3가지 운동을 일으켰다. 이것을 ‘삼애운동’이라고 한다. ① 하나님을 사랑하자 ② 나라를 사랑하자 ③ 땅을 사랑하자고 부르짖었다.

온 국민들이 그룬트비를 따라 함께 일어났다. 그때부터 땀을 흘리고 재건운동을 시작하여 오늘의 지상천국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그룬트비라는 한사람의 헌신이 온 나라를 잘살게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대상은 누구며, 어떠한 각오를 가져야 할는지요?

2. 컴맹이 되지 말라.

인터넷에 도사들이 되어라. 그러나 섬기지는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기도하며 컴퓨터를 다스려라.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못할 일도 아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과학의 눈부신 발전과 인터넷이 등장했다고 생각하자.

그러나 늘 말쑥을 목상하지 않고 잠시라도 한 눈을 판다면 삼손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범죄를 저질러서 부끄러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조심 또 조심하자.

3. 남들이 싫어한다고 슬퍼하지 말라.

남들이 좋아한다고 자만하지 말라.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시당하지 않는 영향력을 발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191장)이 있다.

1절 /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후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2절 /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3절 /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4절 /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모세처럼 많은 욕도 먹거니와 생명의
위협까지 겪었다. 세상의 리더가 되려고 했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도 바울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
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할 수 있습니다.”(빌 4:13)라는 믿음을 가
지고 핍박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갔다.

빌 3:12-14 / [목표를 향한 달음질]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
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
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
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13)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데 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
며 14)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4. 불이 없이는 도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을 만나야 아름다운 흙이 아닌 도자기가 된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피하기보다는 감당하는 인생들이 되자.

농작물이 비바람과 따가운 햇살을 견뎌 실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연단을 견디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다. ‘힘들다, 두렵다’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경천애인 정신으로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면 어떤 연단이든지 능히 견딜 수 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 결국 성숙 즉 참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연단은 축복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한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누구도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라.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희망의 새벽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터널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터널의 끝은 가깝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모진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끝나는 순간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자. 절대 긍정의 신앙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자.

그리고 고난 중에 인내하면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연단한다. 로마서 5장 4a절은 ‘인내는 연단을’이라고 했다. 연단은 인내를 통해 믿음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 더 강하고 순수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 인내하면 그 인내심 때문에 우리의 인격은 연단을 받아 정금과 같이 빛난 인격이 된다.

순금의 원재료는 광석(鑛石)입니다. 돌덩이에 불과한 광석이 1,000도 이상의 용광로에서 세 번 살아남아야 순금이 된다. 동광석을 처음 제련하면 동 그 다음이 은, 마지막에 제대로 된 금이 나온다. 그래서 금세공사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최적의 시간에 금을 용광로에서 끄집어내려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용광로 안을 지켜본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난의 용광로 속에 빠질 때 절대로 빨리 건져내지도 늦게 건져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의 최악의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

나눔께서 귀히 쓰시는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어 주신다.

벧전 4:12-13 /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돌덩이 하나가 조각가의 손에 맡겨지면 셀 수 없는 망치질을 통해 깨어지고 다듬어져 걸작이 되듯 아무 불품없는 돌덩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말씀과 성령의 연장으로 다듬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시 119:71 /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5. ‘돈을 많이 벌면 십일조 하겠습니까’라고 기도하지 말라.

지금 조금밖에 없어도 십일조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100원의 수입이 있더라도 십일조를 하자.

그러한 자만이 큰 것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린다.

말 3:10 / 너희는 수확한 다음에 십일조를 정확하게 나의 성전에 가져다 바쳐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에 양식이 모자랄까봐 염려하지 마라. 내 말을 꼭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는 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풍족한 비를 내리고

언론사의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부자로 살게 된 비결을 말해달라고 했을 때, 대답한 말이다.

“어머니 엘리자로부터 받은 첫 번째 신앙 유산은 십일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용돈 20센트씩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십일조를 드리는 습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존, 네가 받은 20센트 중에서 십분의 일은 누구 것이냐?’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용돈을 줄 때마다 이렇게 묻고, 대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곁을 떠나

면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십일조 주머니로 하여라.’ 저는 돈을 벌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드린 십일조는 50센트였습니다. 그때부터 십일조를 했습니다.”

6. 영성을 먹이겠는가? 죄성을 먹이겠는가?

영성을 먹이는 인생이 되자.

영은 기도와 말씀으로 먹이면 살아난다. 그러면 죄성도 죽는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을 하신 말씀이다.

마 4:4 /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마 6:11 /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물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하는 염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추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급선무(急先務 - 무엇보다도 먼저 서둘러 해야 할 일)로 여기셨던 것이다.

요 4:31-38 /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께 잡수실 것을 권하였다.

32)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절하시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33) 제자들은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수군거렸다. 34)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35) 너희는 아직도 녀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시작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라! 인간 영혼의 광막한 밭은 우리 주위에서 이미 누렇게 익어 이제 거두어들일 때가 되었다. 36) 추수하는 사람은 샅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혼들을 하늘의 공간에 거두어들인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37)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38)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였다. 다른 사람이 일한 것을 너희가 추수하게 될 것이다.”

7. 비 오기를 기도했는가? 우산을 들고 나가라.

은혜받기 위해 기도했는가? 성경책을 들고 나가라.

믿는다고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

전 5:1 /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귀는 열어 놓고 입은 닫아 놓아라!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바치겠다고 성급하게 약속을 드리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모르고 함부로 지껄이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여기 땅에 있다. 그러므로 말을 삼가서 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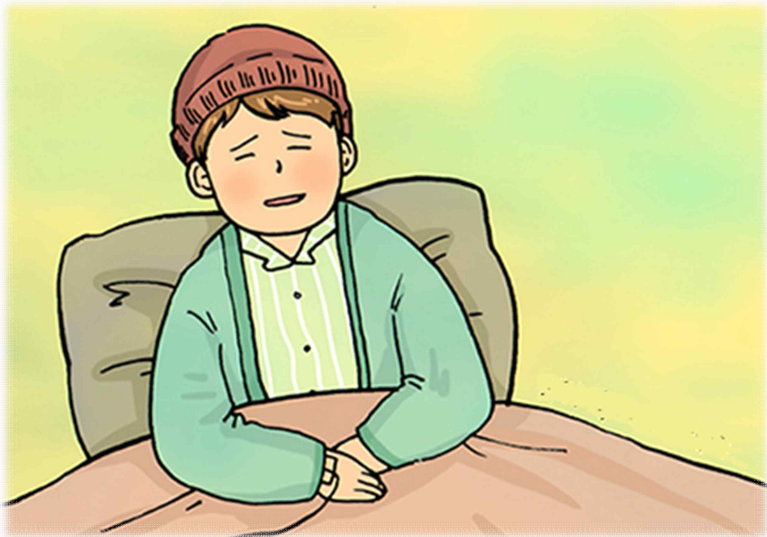
기도했으면 믿고 실천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그때마다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나 백발백중의 기도가 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다.

예를 든다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마 11:29-30),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성령의 뜻을 따르려고 간구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여쭙어 볼 때(약 1:5)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성경을 언제나 묵상하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읽었거나, 묵상했던 말씀, 들었던 말씀 등을 통해 다시 깨닫게도 하신다.

다음 호에 계속 →

나보다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불치의 병을 앓게 된 남자가 있었다.
그에게는 미래를 약속한 연인이 있었다.
남자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는
두 사람 앞에 놓인 가혹한 운명을 탓하며 절망했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
사랑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던 그녀는
이내 아픔을 털고, 현실과 당당히 맞서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다니던 직장을 사직하고 그를 간호하는 데 매진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다.
병실에 함께 있던 환자들은 하나둘 떠나갔다.

회복해서 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었다.
남자는 여자의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악화되기만 했다.
그러다 결국, 한 달이라는 시한부를 판정받기에 이른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알려져서
그 둘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이 몰려왔다.
기자들의 질문은 이어졌고, 인터뷰 중간에
신문에 실을 사진을 찍자고 하자 여자는 흔쾌히 허락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그녀를 잠시 밖으로 내보내고
기자에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사진은 찍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의아한 기자들은 이유를 물었다.

남자는 대답했다.

**“제 여자 친구는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겠어요?
전 그녀가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행여 저와 찍은 사진으로 사람들이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게 되면,
그래서 저와 사귀었던 명확한 과거가 생기게 되면,
그녀의 행복을 찾는 데 방해가 될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두고서도 남겨질 연인을 도리어 걱정하고,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게 사랑 아닐까요?

가슴 절절한 사랑을 해보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사랑한다 말해보세요.

어쩌면 맑고 깨끗한 가을 날.....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으로 넘쳐나지 않을까요.

사랑은 눈 먼 것이 아니다.

더 적게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본다.

다만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더 적게 보려고 하는 것이다.

- 람비 줄리어스 고든 -

* 참된 위로 - essay.171 -



* 참된 위로는 그의 아픔을 가슴 깊이 느끼고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아픔을 당하였을 때
 위로자로부터 위로가 아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는 경험을 하곤 한다.
 그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참된 위로다.

어쭙잖은 위로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참된 위로는 그의 아픔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고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신기한 무화과나무 열매 맺기

무화과나무는 맛있는 열매를 맺어주는 고마운 나무다.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피어야 하고, 꽃가루 수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힌다. 그런데 꽃이 없어서 "무화과"(無花果)라고 불리는 이 나무는 꽃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무화과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꽃이 있다. 꽃 모양도 없고, 수술이나 암술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꽃 같아 보이지도 않아서 그렇지, 꽃은 열매 안에 있다. 보통 열매가 처음 달리는 시기인 여름에 나무에 맺히는 초록빛 동그란 부분이 꽃이다. 이렇게 꽃이 꽃받침 속에 숨어 있어 겉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화과라고 부른다. 보통 무화과나무에는 암꽃 수꽃이 따로 있는데, (야생 무화과는 수나무와 암나무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암꽃과 수꽃이 따로따로 다른 자리에 피거나 한 자리에 핀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꽃은, 바람에 의해서 수컷 무화과에서 암컷 무화과로 꽃가루가 옮겨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무화과나무는 꽃이 열매처럼 생긴 꽃받침 안에 있어서 바람을 통해 꽃가루를 날리거나 곤충을 불러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무화과의 꽃가루를 운반해 줄 유일한 생물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화과나무 말벌"이다. 무화과나무 말벌 암컷은 수컷 무화과 안쪽에 자신의 알을 낳는다. 무화과 열매 입구에 아주 조

그마한 구멍이 열려 있다. 이 구멍은 무화과나무 말벌만을 위한 것으로, 한 마리의 무화과나무 말벌만이 들어갈 수 있다. 한 마리의 암컷 무화과나무 말벌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신기하게도 입구는 스스로 봉해져 다른 벌이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알을 다 낳은 암컷 벌은 수컷 무화과로부터 꽃가루를 잔뜩 묻혀서 나오는데, 이것들은 암컷 무화과만을 찾아가도록 프로그램되어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암컷 무화과를 수정시키고 난 다음, 수컷 무화과로 돌아가서 거기에 또 알을 낳는다. 이것이 반복되는 무화과나무 말벌의 삶의 사이클이다.

무화과나무 말벌은 항상 수컷 무화과 안에다만 알을 낳게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암컷 무화과를 수정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 달콤하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무화과 꽃이 수정되도록 계획하셨을까? 누가 이렇게 신기하게 무화과 열매가 맺히도록 하셨을까?

달콤한 무화과나무 열매를 입에 넣으면 신기한 창조의 숨씨를 발휘하신 그분이 그리워진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간단히 말해 무화과는 과일이 아니라 뒤집힌 꽃이다. 무화과 나무는 사과나 복숭아처럼 꽃이 피지 않는다. 무화과 꽃은 배 모양의 꼬투리 안에 피고, 그게 자라면 우리가 먹는 무화과가 된다. 꽃 하나마다 씨가 하나 있고 껍질이 단단한 과일 하나를 만드는데 그걸 수과(瘦果)라고 한다. 무화과를 먹을 때 바삭바삭한 느낌을





내는 것이 이 수과다. 무화과 하나는 여러 개의 수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과를 먹을 때는 과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는 셈이다.

하지만 무화과의 독특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무화과 꽃이 안에서 피기 때문에, 독특한 수분 과정이 필요하다. 바람이나 벌이 꽃가루를 퍼뜨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무화과 말벌이 필요하다. 무화과는 무화과 말벌이 유전자를 퍼뜨려 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무화과 말벌은 역시 무화과에 애벌레를 까기 때문에 무화과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것을 상리공생(相利共生)이라고 한다.



무화과 말벌 암컷이 알을 낳으러 수 무화과에 들어간다 (참고로 우리는 수 무화과는 먹지 않는다). 수무화과는 말벌이 알을 낳기 좋게 생겼다. 말벌 암컷이 무화과의 작은

입구로 들어갈 때 날개와 더듬이가 부러지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고 나면 나갈 수가 없다. 새끼 말벌들이 생애 주기를 이어가야 한다. 말벌 수컷 새끼들은 날개가 없이 태어난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암컷들(말하자면 자매들)과 교미하고 무화과에 구멍을 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암컷 새끼들이다. 몸에 꽃가루를 묻히고 나온다.

무화과 말별이 실수로 솥무화과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암무화과에 들어갈 경우, 그 안에는 생식을 할 자리가 없다. 그리고 날개와 더듬이가 부러졌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다. 말별은 무화과 안에서 죽는다. 안타깝지만 말별이 무화과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무화과를 먹을 수 있다.

무화과 속의 바삭바삭한 것이 죽은 말별은 아니니 걱정 말라. 무화과는 피신이라는 효소를 사용해 말별을 분해해 단백질로 만들지만, 외골격이 언제나 다 분해되는 것은 아니다. 무화과를 먹을 때 엄밀히 말하면 무화과 말별을 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화과 말별은 엄청나게 작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구할 수 있다. 이 이유로 무화과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7가지 이유

마태복음 7:1-5에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평가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말의 뉘앙스로는 '심판 혹은 정죄'를 하지 말라는 의미다.

찰스 스윈돌 목사는 그의 설교집인 '은혜의 각성(Awakening Grace)'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일곱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1.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는 못한다

정당한 비판을 하려면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늘 제한된 사실만 알 뿐이다. 이렇게 제한된 사실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비판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비판은 사실에 기초해야 하는데, 제한된 사실로 어떻게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겠는가?

2. 우리는 그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동기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 표정을 통해서 그 동기를 100%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동기란 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우리는 비판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3.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인간의 판단은 항상 객관성과 주관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판단이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의 각자의 판단은 늘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의 판단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판단을 할 때에만 그것은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판하고자 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주관성이 개입된 것이라는 점을 늘 인식해야 한다.

4.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어떤 사실이나 사건은 모두 상황맥락적이다. 동일한 사실도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의 예를 보자. 미장이가 벽돌을 쌓다가 조수에게 “벽돌!”하고 외치면 그것은 “벽돌을 가져오라”는 의미다. 그런데, 만약 공사장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벽돌!”하고 외치면 그것은 “떨어지는 벽돌을 피하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다. 이처럼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쉽게 누군가를 비판할 수 없는 것이다.

5.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의 인식은 늘 제한적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할 때 우리는 늘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칭찬받아야 할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쌍히 여겨야 할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드러내기 힘든 장애를 가졌거나 남모르는 고통을 가졌다면, 우리의 비판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6. 우리는 편견이 있으며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편견이 있다. 이것은 주관성보다 훨씬 더 우리 자신을 슬프게 하는 모습이다. 어떤 경우에는 비판하려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이 편견으로 작용할 때가 있다. 또한 비판하려는 상대방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평가를 내린 것이 편견으로 작용하기도 하다.

이런 편견이 있는 한 그 평가는 사실에 근거한 평가가 아니다. 이미 평가를 내려놓고 거기에 필요한 사실만을 열거하려 하기 때문이다.

7.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다

인간은 늘 불완전하며 특별히 일관성이 없다. C S 루이스는 자신이 가르치던 옥스퍼드 대학원 학생이 일관성 없는 태도를 가졌던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다.

그 학생은 저명정치인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파티에서 그 정치인이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자, 그 다음부터는 그 정치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는 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중에 아무도 비판하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유혹 속에서 쉽게 험담과 비판을 즐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간단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다면, 위에서 언급한 일곱 가지 근거를 늘 생각하시라.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

사명을 위해 일하는 행복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역마차에는 세 종류의 좌석이 있었다고 한다.

1등석과 2등석, 3등석의 요금이 각각 차이가 있었는데 이 차이는 역마차가 고장이 났을 때 드러난다.

1등석 요금을 낸 사람은 고장이 나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고, 2등석은 마차에서 내려서

길 옆에 서서 마차가 고쳐질 때까지 구경하는 사람이며,

3등석은 내려서 마부와 함께 마차를 밀고 고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부들은 마차가 출발하기 전에

3등석 요금을 낸 사람들이 누군가를 눈 여겨 보았다.

일꾼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고 도와줄 때,

역마차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구경꾼, 그리고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일꾼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여러 행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행복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행복과 보람은 없다.